

주요 노동동향

●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1년 10월 생산은 전월대비 1.9% 감소(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광공업, 공공행정,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줄어 전월대비 1.9% 감소함.
 - － 전년동월대비로는 서비스업, 광공업,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늘어 4.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의약품, 의복및모피 등에서 늘었으나, 자동차, 1차금속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3.1%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4.6%).
-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음식점 등에서 늘었으나,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3%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5.2%).

◆ 2021년 10월 소비는 전월대비 0.2% 증가,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5.4% 감소

- 소매판매액지수는 화장품 등 비내구재(-2.1%) 판매가 줄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8%), 가전제품 등 내구재(2.2%) 판매가 늘어 전월대비 0.2% 증가함 (전년동월대비 +7.4%).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4%) 및 선박 등 운송장비(-8.7%)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대비 5.4% 감소함 (전년동월대비 +2.9%)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3%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8.1%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18	2019	2020	2019				2020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0월	9월p	10월p
생산	전 산업	1.5	1.0	-1.2	-0.6	1.1	1.0	0.6	-1.8	-3.0	2.8	1.6	0.1	1.1(1.4)	-1.9(4.8)
	광공업	1.4	0.4	-0.4	-1.9	1.9	1.8	0.7	-0.6	-6.5	6.0	2.9	-0.5	-1.1(-1.8)	-3.0(4.5)
	제조업	1.3	0.5	-0.3	-2.1	2.1	1.8	0.9	-0.6	-6.9	6.4	3.1	-0.6	-1.1(-1.9)	-3.1(4.6)
	건설업	-4.2	-2.3	-4.1	2.6	0.2	-2.2	1.0	-0.7	-2.9	-2.8	2.5	-0.7	1.8(-9.9)	-1.3(-0.8)
	서비스업	2.3	1.4	-2.0	0.3	0.5	0.7	0.4	-2.9	-1.3	2.0	0.9	0.8	1.4(3.4)	-0.3(5.2)
소비	소비재 판매	4.3	2.4	-0.2	1.5	0.2	-0.1	2.0	-5.7	5.9	-1.1	0.9	-0.7	2.4(3.6)	0.2(7.4)
투자	설비투자	-3.6	-5.7	6.0	-3.4	2.1	2.0	3.4	-1.0	2.7	2.2	0.8	-5.0	-1.8(-5.0)	-5.4(2.9)
물가		1.5	0.4	0.5	-0.4	0.4	-0.1	0.3	0.5	-0.8	0.6	0.1	-0.1	0.1(3.2)	0.4(3.7)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을 포괄함.
- 3) 2019년 이후 전 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0년 11월, 2021년 10월, 2021년 11월 기준임.
- 5) p는 잠정치임.
-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 7)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월대비 0.4%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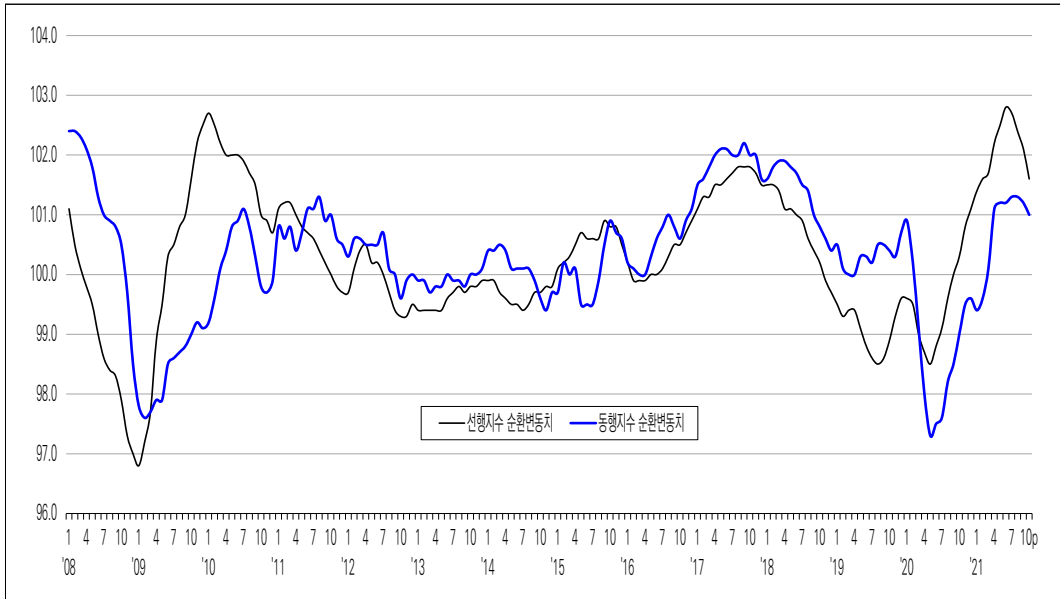
○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1(2015=100)로 전월대비 0.4%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7%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교통(2.0%), 식료품·비주류 음료(0.5%), 의류·신발(1.3%), 음식·숙박(0.5%), 통신(0.6%), 주택·수도·전기·연료(0.2%), 가정용품·가사서비스(0.3%), 보건(0.1%)은 상승, 교육, 주류·담배는 변동 없으며, 기타 상품·서비스(-0.5%), 오락·문화(-1.6%)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이 전월대비 0.7% 상승,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7% 상승하여 전월대비 0.7% 상승함.

◆ 2021년 10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1% 하락,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하락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5=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범,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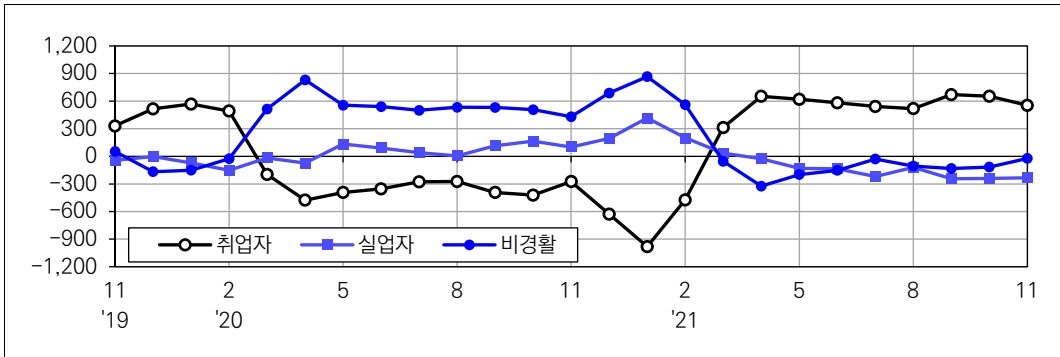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축소, 전월대비는 증가

○ 2021년 11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55만 3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전월대비¹⁾ 3만 1천 명 증가).

-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로 전환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도 증가세가 지속됨. 건설업은 증가폭이 축소되고 음식숙박은 감소로 전환함. 정보통신 및 보건복지는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짐.
-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11월은 3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40대가 감소로 전환함. 30대는 건설 및 대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40대는 건설, 공공행정, 운수창고 및 보건복지에서 고용이 줄어들음. 20대, 50대 및 60세 이상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함.
- (종사상 지위별) 11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확대됨. 임시직은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자영업자는 전월대비로 2개월 연속 증가함.
- (일시휴직자) 11월 일시휴직자는 전년동월대비 12만 2천 명 감소하여 변동이 없음(10월 -12만 2천 명). 전월대비로 1천 명 감소함.
- (실업자) 11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3만 3천 명 감소하여 감소폭이 축소(10월 -24만 1천 명)됨. 연령별로 40대는 감소폭이 축소되고 60세 이상은 감소폭이 확대됨.

[그림 1] 취업자, 실업자, 비경황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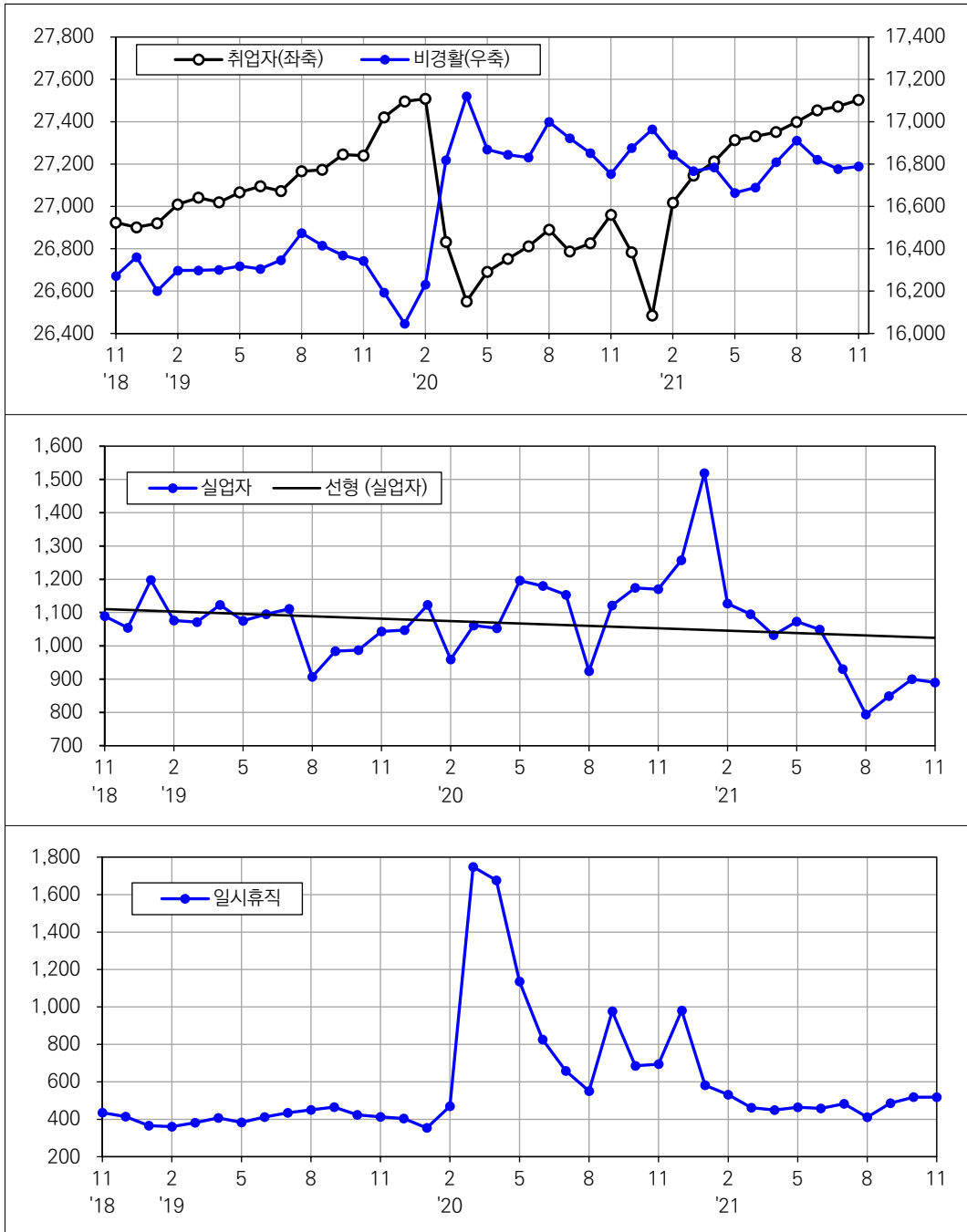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2]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일시휴직자 변화

(단위 : 천 명)



주 : 일시휴직자는 X-12 ARIMA를 이용하여 계절조정계열을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30대에서 감소폭이 확대되고 40대에서 감소 전환함.
 - 30대 취업자는 제조업 및 개인 서비스에서 감소폭이 축소되었지만 건설 및 대면서비스업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됨. 40대는 건설, 공공행정에서 감소로 전환된 것과 운수창고 및 보건복지에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임.
 - 20대는 큰 변동이 없음. 50대는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고 60세 이상은 증가폭이 축소됨.

〈표 1〉 2021 연령별 취업자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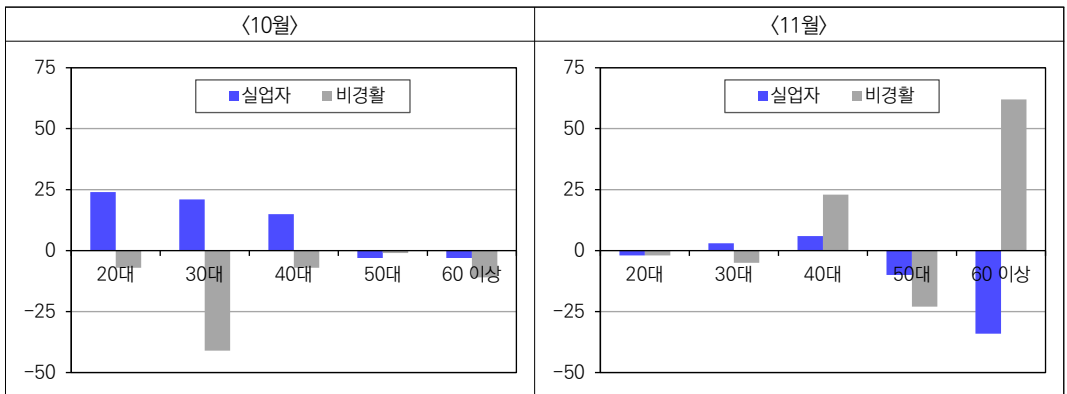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취업자	16	12	12	(1)	202	168	156	(0)	-12	-24	-69	(-6)
실업자	-4	-2	1	(5)	-137	-105	-104	(-2)	-61	-59	-52	(3)
비경황	-141	-130	-124	(-10)	-82	-90	-91	(-2)	-66	-52	-10	(-5)
실업률	-2.6	-1.8	0.1	(2.6)	-3.6	-2.7	-2.7	(-0.1)	-1.1	-1.0	-0.9	(0.1)
고용률	1.1	0.8	0.8	(0.0)	3.3	2.8	2.8	(0.0)	1.3	1.1	0.4	(0.0)
	40대				50대				60세 이상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9월	10월	11월	(전월비)
취업자	18	20	-27	(-33)	124	124	149	(39)	323	352	331	(19)
실업자	-35	-36	-18	(6)	-9	-29	-35	(-10)	2	-10	-24	(-34)
비경황	-52	-52	-20	(23)	-112	-85	-97	(-23)	320	293	319	(62)
실업률	-0.5	-0.5	-0.3	(0.1)	-0.2	-0.5	-0.5	(-0.2)	-0.1	-0.4	-0.6	(-0.6)
고용률	0.8	0.9	0.2	(-0.4)	1.4	1.4	1.6	(0.4)	0.3	0.6	0.4	(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 2021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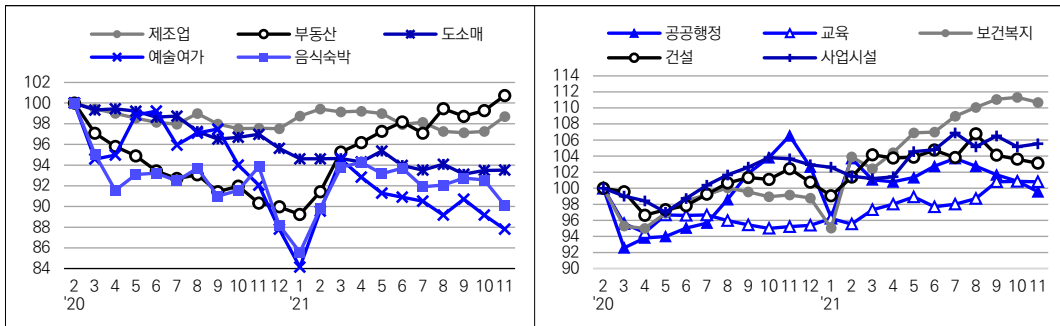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 취업자 수는 예술여가, 음식숙박, 공공행정, 보건복지, 건설이 감소함. 도
소매, 교육, 사업시설은 정체된 반면 부동산, 제조업은 개선됨.
- 부동산, 보건복지, 건설, 사업시설, 교육은 작년 2월 수준 이상을 유지함.

[그림 4] 2021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계절조정계열, 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2021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22	20	31	-9	18	19	28	1.9
광업	-1	0	-2	-2	0	0	-2	-15.4
제조업	-37	-13	51	-5	5	64	64	1.5
전기·가스·증기	-3	2	0	4	2	0	6	8.5
수도·원료재생	20	13	7	2	-5	1	-2	-1.2
건설업	57	52	16	-54	-10	-10	-74	-3.4
도매 및 소매업	-122	-113	-123	-34	13	1	-20	-0.6
운수 및 창고업	163	163	148	34	13	-3	44	2.8
숙박 및 음식점업	39	22	-86	15	-4	-56	-45	-2.1
정보통신업	97	103	106	13	-1	14	26	2.8
금융 및 보험업	5	15	20	-8	4	0	-4	-0.5
부동산업	41	39	56	-4	3	8	7	1.3
전문·과학·기술	59	64	87	12	9	26	47	3.9
사업시설관리지원	52	19	25	18	-18	5	5	0.4
공공행정·사회보장	-1	-33	-81	-12	-9	-15	-36	-3.1
교육서비스업	98	108	105	39	1	-1	39	2.1
보건 및 사회복지	280	300	279	24	6	-15	15	0.6
예술·스포츠·여가	-34	-26	-22	8	-8	-7	-7	-1.5
협회·단체·수리·기타	-41	-57	-49	-12	-16	8	-20	-1.7
가구 내 고용·자가소비	-21	-22	-12	2	-3	3	2	2.4
국제 및 외국기관	-3	-3	-2	2	-2	2	2	1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2021년 11월은 전년동월대비 임시직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 전년동월대비 상용직은 제조업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임시직은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등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일용직은 건설 및 음식숙박에서 감소폭이 확대됨.
- 대면서비스 중 도소매업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축소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폭이 확대됨. 음식숙박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감소 전환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전월대비로 자영업자는 2개월 연속 증가함.

〈표 3〉 2021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계절조정계열)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증감	증감률
상용직	515	615	611	72	91	63	226	1.5
임시직	340	219	106	41	-88	-11	-58	-1.2
일용직	-121	-162	-175	-54	-40	-4	-97	-7.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8	-26	-4	-17	24	33	40	3.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2	45	42	-4	25	5	26	0.6
무급가족종사자	-37	-37	-27	-15	10	-4	-10	-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2021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9월	10월	11월
농림어업	-8	-10	-11	-3	-5	0	6	5	6	1	-5	-3	37	46	43
제조업	-9	18	62	-12	-14	-14	1	-16	-13	-19	-9	-5	-2	1	6
건설업	103	88	74	-8	-8	-13	-61	-46	-63	-3	0	5	20	15	7
도소매	-32	-5	-28	-1	-14	-7	-25	-33	-25	-26	-21	-9	-9	-15	-26
운수창고	74	74	75	38	23	11	11	11	1	-2	-2	1	39	54	58
음식숙박	-23	-32	-49	65	50	22	-32	-44	-60	1	7	-7	30	37	8
정보통신	87	94	97	23	26	13	3	1	6	-1	1	3	-15	-18	-13
금융보험	-17	-1	-8	29	23	35	-4	-3	-2	-1	-2	-2	-1	-2	-3
부동산	28	25	45	16	15	10	1	3	1	-6	-5	-4	3	1	2
전문과학기술	82	98	110	-6	-17	-11	-3	-4	-5	-5	0	0	-6	-9	-3
사업관리지원	18	-13	-2	17	25	17	3	3	2	6	4	1	6	-3	3
공공행정	62	68	41	-63	-96	-114	0	-6	-7	-	-	-	-	-	-
교육서비스	16	36	43	98	67	48	3	2	3	1	0	8	-26	-2	0
보건복지	115	151	147	164	148	126	-1	-4	-4	9	10	14	-3	-2	-3
예술스포츠	4	10	10	4	-5	-19	-13	-8	-3	-7	-3	-6	-16	-13	0
협회단체	8	5	5	-2	18	14	-17	-26	-13	3	-1	-1	-29	-47	-36
가구 내 고용	0	2	3	-18	-21	-14	2	-1	2	0	-1	0	-5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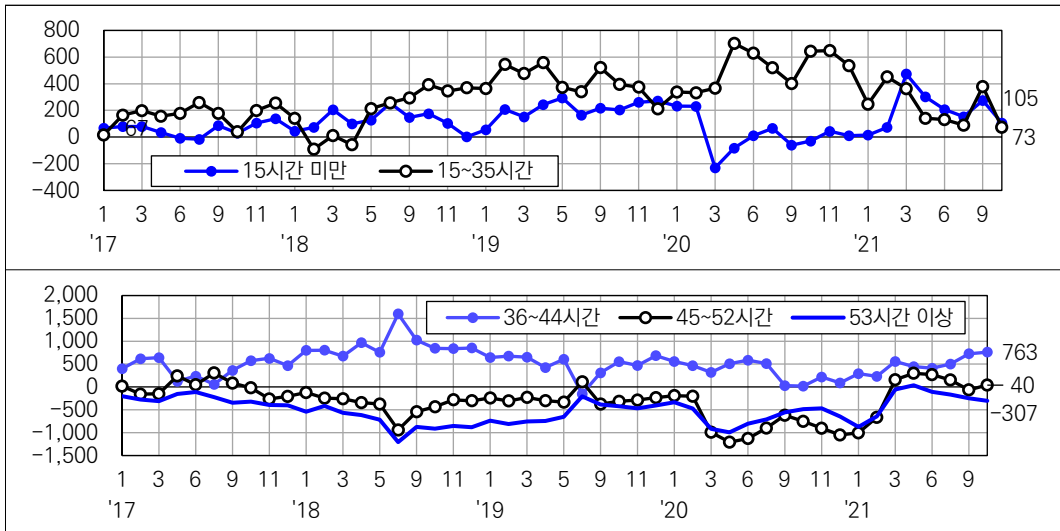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1월 평균 총근로시간은 39.3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1시간 감소함.

－ 11월은 단시간 근로자의 증가폭이 둔화되고 36~52시간 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함.

[그림 5] 근로시간 집단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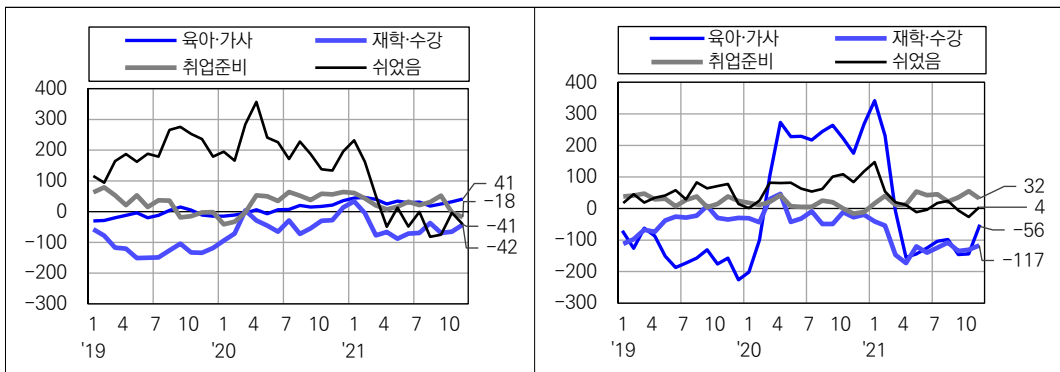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만 3천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10월 -11.6만 명)됨.

－ 남성은 쉬었음에서 감소폭이 확대되어 전체 비경활인구가 감소 전환됨. 반면 여성은 육아·가사에서 감소폭이 크게 축소되고 쉬었음이 증가 전환함.

[그림 6] 성별(남자: 좌, 여자: 우)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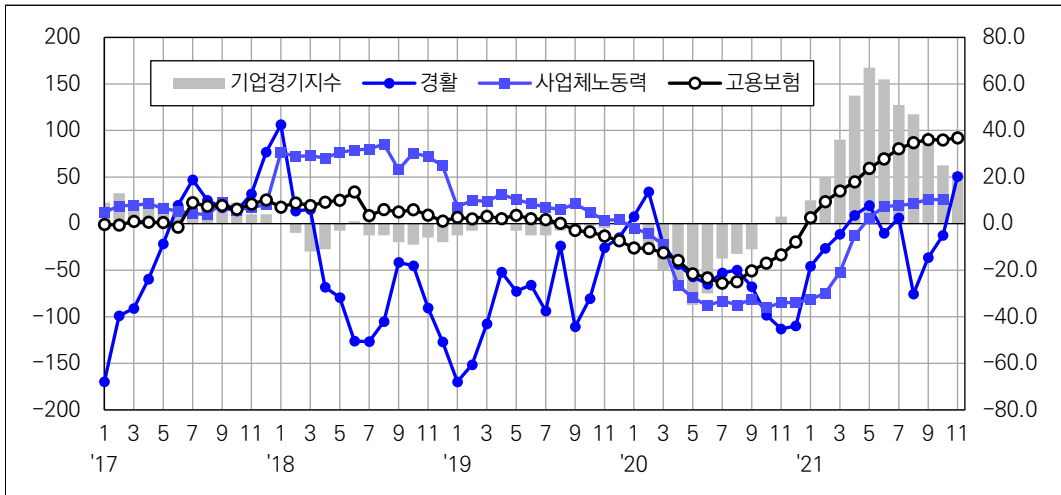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는 증가로 전환, 서비스업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 2021년 11월 전년동월대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3천 명 증가하며 증가로 전환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증가세가 지속됨. 피보험자는 기계장비, 금속가공 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고 전기장비 및 전자통신에서는 증가폭이 축소됨.
- 경찰 계절조정계열 취업자는 전월대비 6만 4천 명 증가함.

[그림 7]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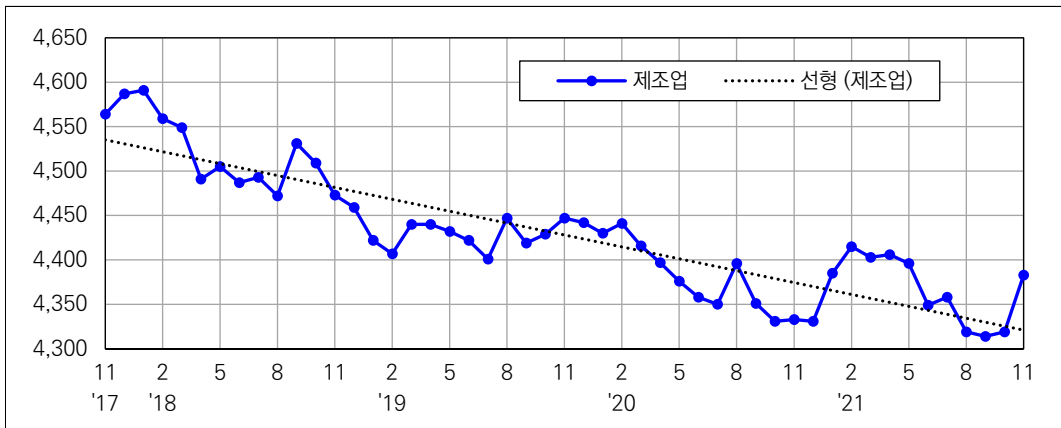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8]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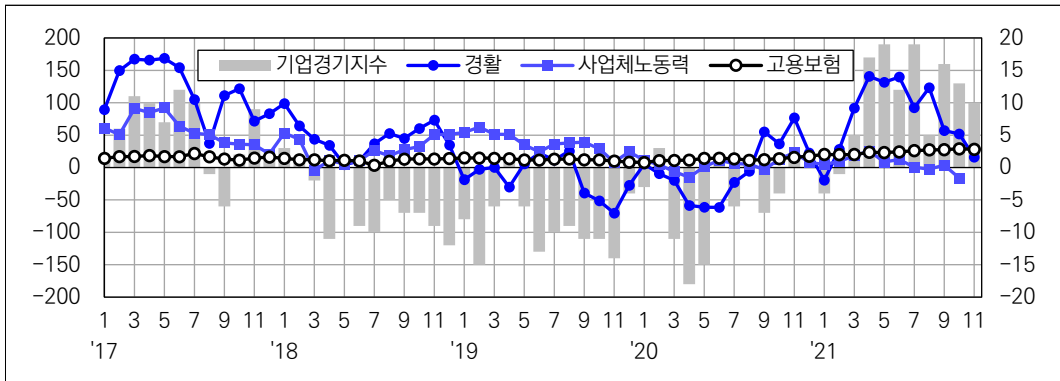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1년 11월 건설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는 1만 6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축소됨.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증가세를 유지함.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는 1만 6천 명 감소함.

[그림 9]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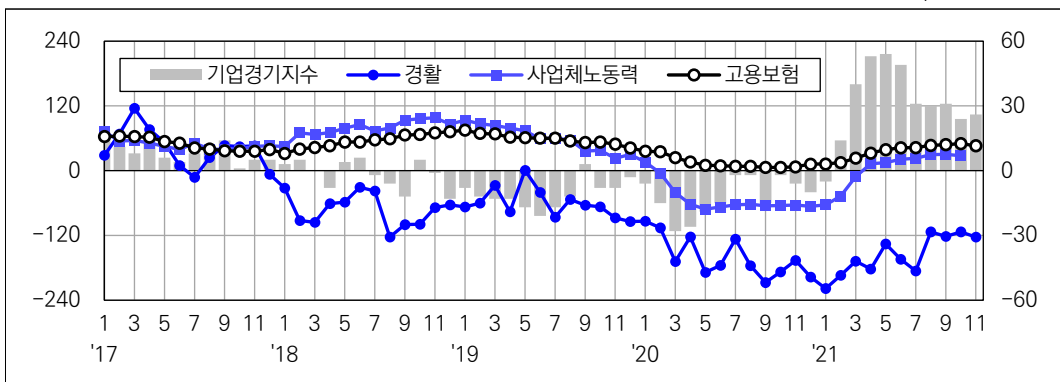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11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45만 8천 명 증가하여 2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됨.
 - (도소매) 취업자는 8월 이후 취업자의 변동이 크지 않으나 업황은 개선세가 이어짐.
 - (숙박음식) 작년의 기저가 더해져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됨. 기타 고용지표에서는 변동이 없음. 경찰 취업자는 모든 종사상지위에서 증가폭이 축소되거나 감소폭이 확대됨.
 - (정보통신업) 경찰은 증가 추세가 이어지나 다른 지표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 (보건복지) 경찰 취업자는 증가폭이 축소됨.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증가폭이 소폭 축소됨.

[그림 10] 도매 및 소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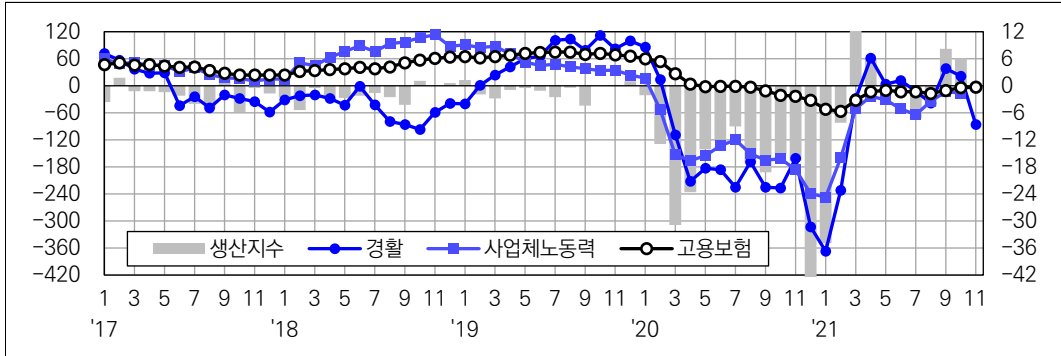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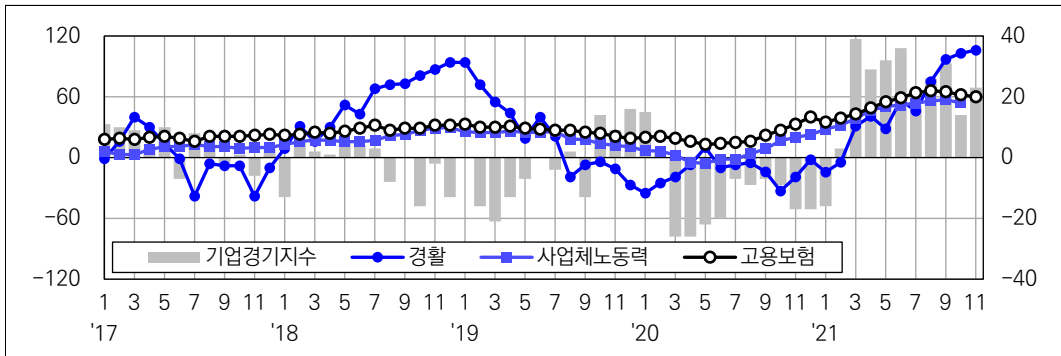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2] 정보통신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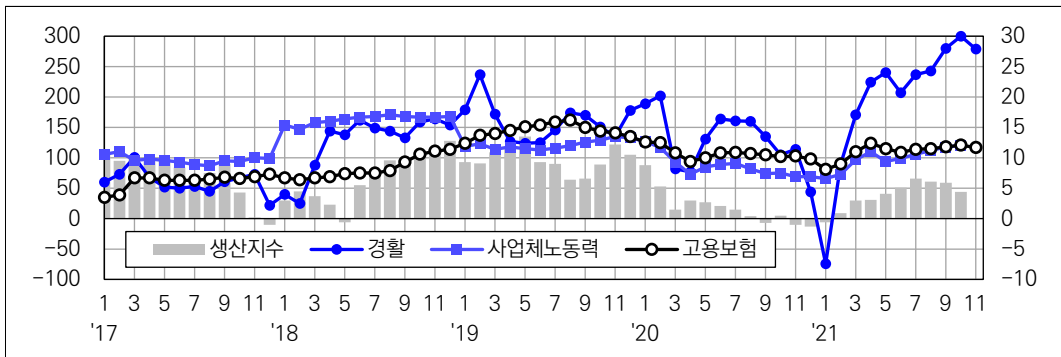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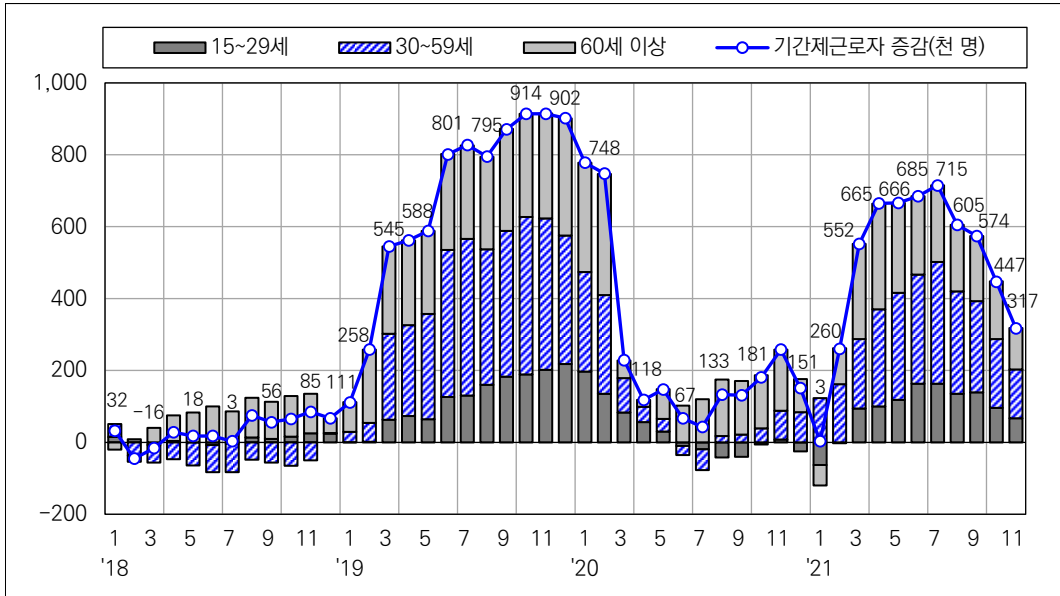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1년 11월 기간제 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31만 7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의 축소가 이어짐. 기간제는 전 연령대에서 증가폭이 축소됨. 2019년의 기간제 증가는 2019년 3월 'ILO 신종사상 지위개정을 반영하기 위한 병행조사'가 시작된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것임.

[그림 14] 연령대별 기간제 근로자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지상훈,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1년 9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2021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 1천 원(3.8%)임.

- 2021년 9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19만 7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 증가,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71만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확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 둔화와 특별급여가 감소한 기저효과,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특별급여 증가 등에 따른 영향임.
- 비상용(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폭 축소는 전년동월에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 근로자가 감소하면서 임금상승률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2021년 9월에는 건설업의 임금상승폭 둔화,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의 임시·일용 근로자 증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임.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1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2015=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함.

〈표 1〉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5=100.0)

근로자	2017	2018	2019	2020	2020		2021	
					1~9월	9월	1~9월	9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207 (3.3)	3,376 (5.3)	3,490 (3.4)	3,527 (1.1)	3,522 (0.8)	3,816 (1.9)	3,675 (4.4)	3,961 (3.8)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418 (2.6)	3,592 (5.1)	3,702 (3.1)	3,719 (0.4)	3,709 (0.0)	4,039 (1.5)	4,197 (3.9)
	정액급여	2,764 (3.6)	2,891 (4.6)	3,010 (4.1)	3,077 (2.2)	3,062 (2.1)	3,060 (2.4)	3,162 (3.3)
	초과급여	190 (0.6)	197 (3.7)	202 (2.7)	200 (-0.9)	196 (-2.1)	205 (3.5)	205 (4.2)
	특별급여	464 (-2.2)	504 (8.5)	490 (-2.8)	441 (-9.9)	451 (-11.4)	773 (-2.7)	510 (13.1)
임시·일용 근로자 임금총액	1,353 (5.1)	1,428 (5.5)	1,517 (6.2)	1,636 (7.8)	1,624 (7.9)	1,647 (7.7)	1,691 (4.2)	1,710 (3.8)
소비자물가지수	103.0 (1.9)	104.5 (1.5)	105.1 (0.4)	105.7 (0.5)	106.2 (0.6)	106.2 (1.0)	108.8 (2.0)	108.8 (2.5)
실질임금증가율	1.3	3.7	3.0	0.5	0.2	0.9	2.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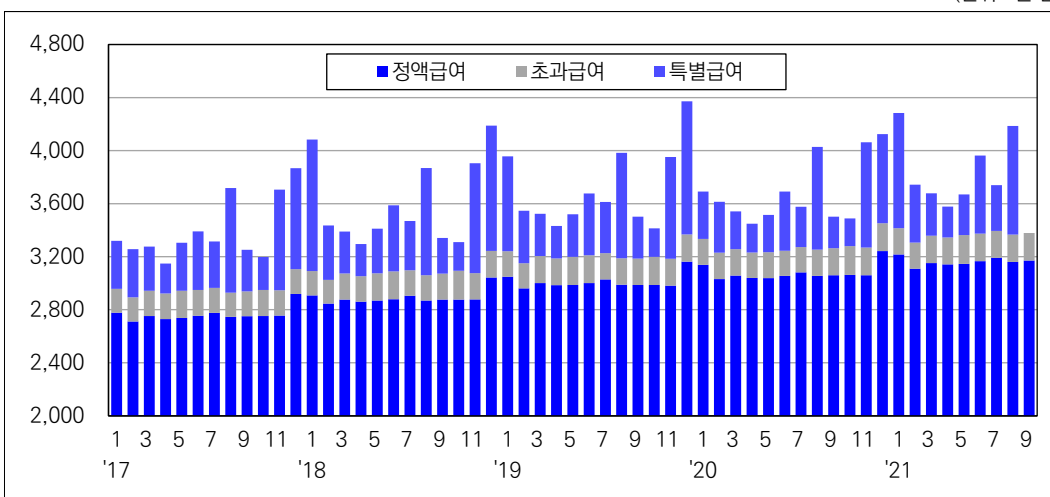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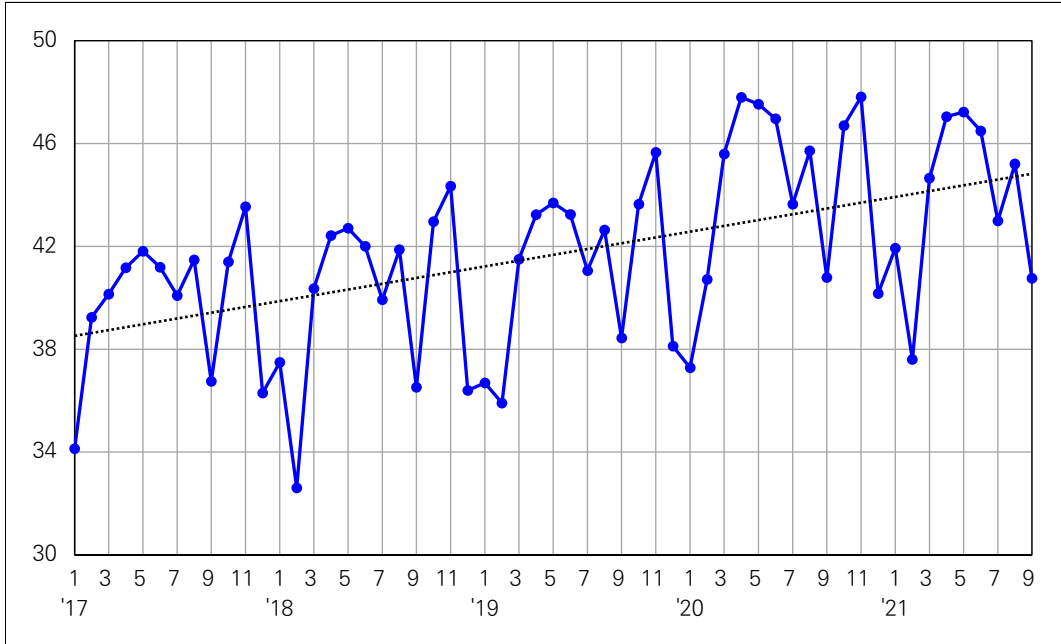
(단위 : 천 원)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일용 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상용직 임금=100)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9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임금상승폭 확대

○ 2021년 9월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3.8% 증가함.

- 중소기업(1~299인)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3.9% 증가하였으며, 대규모(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은 3.8% 증가함.
 -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3.2%, 10.1% 증가함.
 - 1~9월 평균 중소기업 ·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은 전년동평균대비 각각 3.7%, 5.9% 증가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임금 증가는 금융 및 보험업 등에서 성과급이 증가한 영향이며,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증가는 전년도 성과급이 축소되었던 반도체,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등에서 성과급 확대, 자동차 관련 산업의 임금협상 타결금 확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9월	9월	1~9월	9월
중소 규모	소 계	3,019(4.6)	3,139(4.0)	3,193(1.7)	3,184(1.5)	3,428(2.6)	3,302(3.7)	3,557(3.8)
	상용임금총액	3,217(11.5)	3,338(3.7)	3,377(1.2)	3,364(0.9)	3,642(2.2)	3,493(3.9)	3,783(3.9)
	정액급여	2,723(4.7)	2,841(4.3)	2,915(2.6)	2,902(2.5)	2,905(2.9)	2,996(3.2)	3,009(3.6)
	초과급여	172(4.8)	175(2.0)	171(-2.4)	167(-3.7)	175(3.1)	173(3.6)	174(-0.9)
	특별급여	322(1.9)	322(-0.2)	292(-9.4)	294(-11.0)	562(-1.2)	324(10.2)	600(6.9)
	비상용임금총액	1,422(5.3)	1,505(5.8)	1,615(7.3)	1,603(7.3)	1,616(7.5)	1,662(3.7)	1,667(3.2)
대규모	소 계	5,305(6.5)	5,356(1.0)	5,242(-2.1)	5,261(-2.7)	5,794(-1.5)	5,569(5.9)	6,011(3.8)
	상용임금총액	5,474(6.4)	5,492(0.3)	5,335(-2.8)	5,352(-3.6)	5,905(-1.8)	5,671(6.0)	6,132(3.8)
	정액급여	3,735(3.8)	3,843(2.9)	3,847(0.1)	3,822(-0.2)	3,790(0.1)	3,938(3.1)	3,936(3.8)
	초과급여	324(0.0)	335(3.5)	340(1.4)	335(0.3)	346(3.2)	353(5.2)	360(4.1)
	특별급여	1,415(15.7)	1,313(-7.2)	1,149(-12.5)	1,195(-14.0)	1,769(-6.5)	1,380(15.4)	1,837(3.8)
	비상용임금총액	1,509(7.8)	1,712(13.4)	2,029(18.5)	2,030(20.4)	2,211(10.6)	2,219(9.3)	2,433(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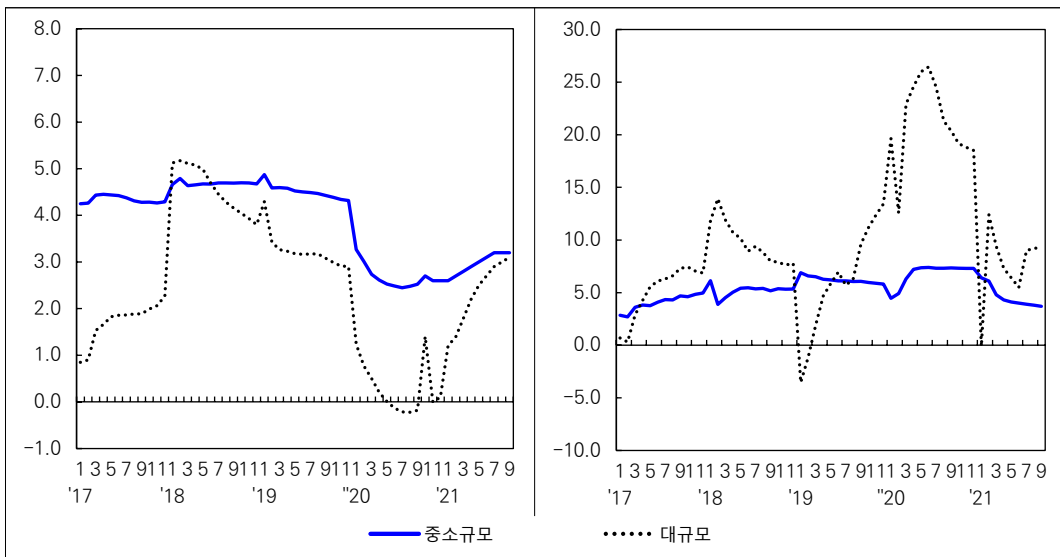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비상용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비상용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1%)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1년 9월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81만 7천 원)이며, 다음으로 금융 및 보험업(762만 8천 원),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33만 8천 원) 순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임금상승폭이 컸던 산업은 운수 및 창고업(8.7%), 금융 및 보험업(7.7%)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도 평균임금상승률(3.8%)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9월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6만 6천 원)이며,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63만 9천 원),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294만 8천 원) 순으로 평균임금(396만 1천 원)과 큰 차이를 보임.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천 원, %)

	2018	2019	2020	2020		2021	
				1~9월	9월	1~9월	9월
전 산업	3,376 (5.3)	3,490 (3.4)	3,527	3,522	3,816	3,675 (4.4)	3,961 (3.8)
광업	3,835 (3.3)	3,977 (3.7)	4,325	4,342	4,719	4,445 (2.4)	4,831 (2.4)
제조업	3,930 (6.5)	4,017 (2.2)	3,990	3,972	4,406	4,206 (5.9)	4,582 (4.0)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436 (2.5)	6,502 (1.0)	6,733	6,803	11,053	6,835 (0.5)	10,817 (-2.1)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3,288 (6.5)	3,506 (6.6)	3,888	3,822	4,403	4,007 (4.8)	4,621 (5.0)
건설업	2,784 (6.1)	2,951 (6.0)	3,032	3,043	3,228	3,093 (1.6)	3,288 (1.9)
도매 및 소매업	3,214 (5.4)	3,372 (4.9)	3,423	3,406	3,642	3,531 (3.7)	3,725 (2.3)
운수 및 창고업	3,357 (6.4)	3,476 (3.5)	3,530	3,514	3,726	3,735 (6.3)	4,049 (8.7)
숙박 및 음식점업	1,757 (8.1)	1,875 (6.7)	1,879	1,882	1,932	1,892 (0.5)	1,966 (1.8)
정보통신업	4,277 (3.8)	4,463 (4.3)	4,613	4,637	4,837	4,815 (3.8)	4,929 (1.9)
금융 및 보험업	6,026 (5.6)	6,236 (3.5)	6,526	6,541	7,079	7,027 (7.4)	7,628 (7.7)
부동산업	2,600 (6.3)	2,755 (6.0)	2,848	2,851	2,936	2,941 (3.2)	3,089 (5.2)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757 (5.9)	4,901 (3.0)	4,871	4,840	5,159	5,056 (4.5)	5,338 (3.5)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203 (5.5)	2,332 (5.9)	2,411	2,396	2,516	2,481 (3.6)	2,639 (4.9)
교육서비스업	3,397 (2.5)	3,474 (2.3)	3,366	3,433	3,697	3,419 (-0.4)	3,728 (0.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799 (4.8)	2,960 (5.8)	2,942	2,941	3,152	3,012 (2.4)	3,293 (4.5)
여가 관련 서비스업	2,684 (6.8)	2,819 (5.0)	2,873	2,877	3,108	2,987 (3.8)	3,209 (3.3)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401 (7.2)	2,517 (4.8)	2,563	2,560	2,843	2,703 (5.6)	2,948 (3.7)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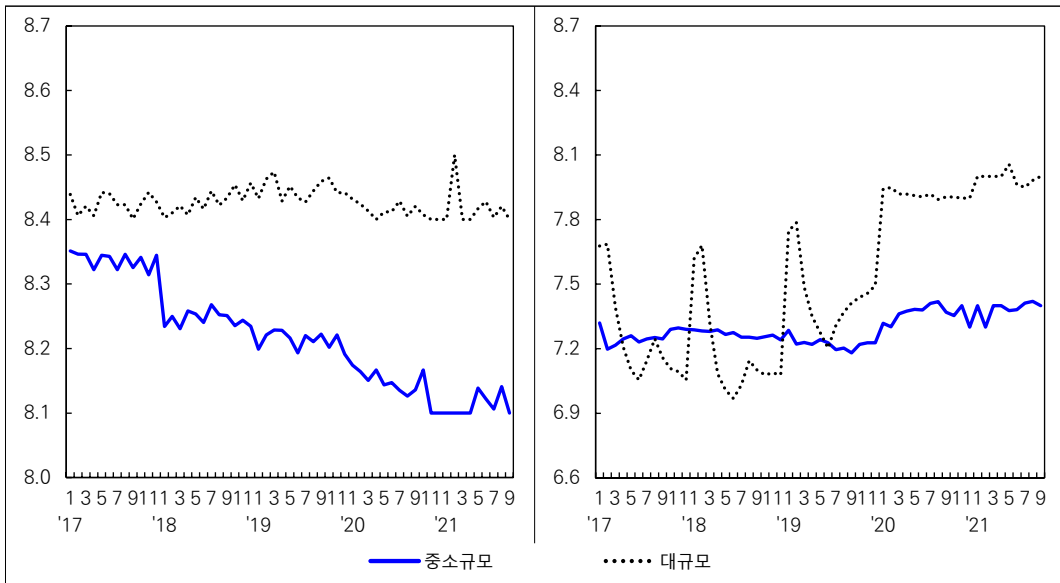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4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8시간 감소(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

- 2021년 9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4.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4.0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는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으로, 근로일수가 전년동월대비 2일 감소한 영향으로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임.
- 2021년 9월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6.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시간 감소함.
 - 비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데 기인함.
- 중소기업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시간 감소, 대규모 사업체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49.6시간으로 15.1시간 감소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직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비상용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직, 비상용직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 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9월	9월	1~9월	9월
중소 규모	전체 근로시간	164.1(-1.5)	163.0(-0.7)	160.1(-1.8)	160.3(-1.1)	161.8(6.5)	159.1(-0.7)	149.4(-7.7)
	상용 총근로시간	172.1(-1.3)	171.2(-0.5)	167.6(-2.1)	167.6(-1.5)	169.5(6.6)	166.3(-0.8)	155.9(-8.0)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63(-1.0)	162.6(-0.2)	159.8(-1.7)	160.0(-1.0)	161.4(7.0)	158.7(-0.8)	148.3(-8.1)
	상용 초과근로시간	9.1(-6.2)	8.6(-5.5)	7.8(-9.3)	7.6(-11.6)	8.0(-2.4)	7.6(0.0)	7.5(-6.3)
	비상용 근로시간	99.2(-6.1)	95.4(-3.8)	96.1(0.7)	95.8(0.3)	96.5(4.2)	97.0(1.3)	95.1(-1.5)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3.3(-0.7)	164.1(0.5)	162.8(-0.8)	163.1(-0.2)	164.7(7.4)	161.7(-0.9)	149.6(-9.2)
	상용 총근로시간	166.6(-0.7)	166.3(-0.2)	163.9(-1.4)	164.2(-1.0)	166.0(7.2)	162.7(-0.9)	150.6(-9.3)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4.9(-0.3)	154.9(0.0)	153.0(-1.2)	153.4(-0.6)	154.9(7.9)	151.7(-1.1)	139.5(-9.9)
	상용 초과근로시간	11.7(-4.9)	11.4(-2.6)	10.9(-4.4)	10.8(-5.3)	11.1(-0.9)	11.0(1.9)	11.1(0.0)
	비상용 근로시간	89.2(-1.2)	104.9(17.6)	125.2(19.4)	125.7(22.9)	121.6(13.0)	128.1(1.9)	120.3(-1.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1년 9월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 영향으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21년 9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 재생업(164.3시간)이며, 다음으로 광업(163.7시간),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2.6시간), 부동산업(162.5시간) 등이며, 제조업도 159.8시간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7.1시간), 건설업(127.8시간), 숙박 및 음식점업(142.3시간)으로 나타남.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시간, %)

	2018	2019	2020	2020		2021	
				1~9월	9월	1~9월	9월
전 산업	163.9(-1.4)	163.1(-0.5)	160.6	160.8	162.2	159.5(-0.8)	149.4(-7.9)
광업	176.6(0.5)	175.7(-0.5)	181.2	180.1	183.3	178.6(-0.8)	163.7(-10.7)
제조업	177.1(-1.5)	175.9(-0.7)	172.7	172.1	176.4	172.2(0.1)	159.8(-9.4)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62.1(-1.7)	160.4(-1.0)	163.7	164.1	165.7	162.5(-1.0)	162.6(-1.9)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7.8(0.4)	178.6(0.4)	176.5	176.7	177.5	175.3(-0.8)	164.3(-7.4)
건설업	138.5(-2.4)	136.3(-1.6)	136.9	137.6	137.5	135.0(-1.9)	127.8(-7.1)
도매 및 소매업	165.2(-1.4)	165.5(0.2)	163.8	164.1	166.0	162.7(-0.9)	152.2(-8.3)
운수 및 창고업	166.5(-1.6)	164.3(-1.3)	159.0	159.3	159.4	159.1(-0.1)	150.9(-5.3)
숙박 및 음식점업	159.7(-0.4)	158.6(-0.7)	149.7	150.3	147.5	146.9(-2.3)	142.3(-3.5)
정보통신업	161.6(0.4)	163.9(1.4)	163.8	164.4	165.3	163.0(-0.9)	150.9(-8.7)
금융 및 보험업	160.9(0.2)	161.5(0.4)	162.1	162.8	164.0	161.0(-1.1)	147.8(-9.9)
부동산업	178.9(-3.2)	176.4(-1.4)	173.2	173.3	174.3	170.8(-1.4)	162.5(-6.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4(0.2)	161.4(0.6)	161.7	162.7	163.1	160.6(-1.3)	147.9(-9.3)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63.2(-1.2)	162.7(-0.3)	161.7	161.9	162.1	161.1(-0.5)	151.2(-6.7)
교육서비스업	142.3(-1.5)	142.1(-0.1)	136.6	136.6	136.1	136.1(-0.4)	127.1(-6.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2.5(-1.2)	162.2(-0.2)	158.6	158.7	160.7	157.0(-1.1)	148.0(-7.9)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7.7(-1.1)	156.1(-1.0)	149.7	150.8	148.8	151.8(0.7)	145.3(-2.4)
협회·단체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62.0(-1.3)	159.9(-1.3)	160.3	160.4	162.8	161.1(0.4)	151.7(-6.8)

주: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2018~19년 자료는 제9차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것임.

3)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1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20건
 - 11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12건)보다 8건 많은 수치임.
- 2021년 11월 조정성립률 25.0%
 - 11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55.6%에 비해 30.6%포인트 낮은 수치임.

〈표 1〉 2020년, 2021년 11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1. 11.	20	12	3	1	2	9	0	9	0	0	11	25.0%
2020. 11.	12	19	10	4	6	8	0	8	0	1	6	55.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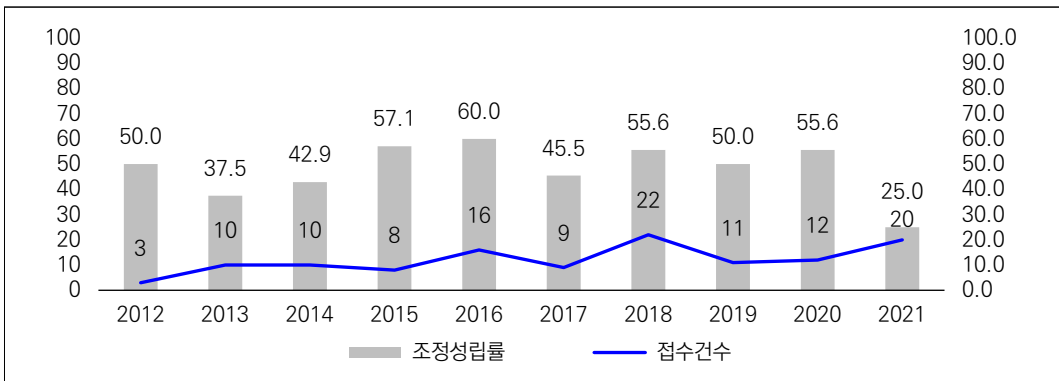
〈표 2〉 2012~21년 11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2012. 11.	2013. 11.	2014. 11.	2015. 11.	2016. 11.	2017. 11.	2018. 11.	2019. 11.	2020. 11.	2021. 11.
접수건수	3	10	10	8	16	9	22	11	12	20
조정성립률	50.0	37.5	42.9	57.1	60.0	45.5	55.6	50.0	55.6	25.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그림 1〉 2012~21년 11월 접수 건수 및 조정성립률 추이

(단위 : 건, %)



◆ 심판사건

- 2021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41건
 - 11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88건)보다 47건 적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33.0%(6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67.0%(124건)를 차지함.

〈표 3〉 2020년, 2021년 11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1.	141	185	53	8	82	11	20	11	431
2020. 11.	188	225	56	12	96	19	25	17	58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1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5건
 - 11월 복수노조사건¹⁾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0.0%(1건), 기각·각하·취하·화해 비율이 80.0%(4건)를 차지함.

〈표 4〉 2020년, 2021년 11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1. 11.	5	5	1	0	3	1	0	0	8
2020. 11.	7	8	5	0	3	0	0	0	8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플랫폼 노동자 66만 명, 코로나19로 3배 늘었다

- 11월 18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플랫폼 종사자의 규모와 근무실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의 온라인 플랫폼의 증가·알선을 통해 일감을 얻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수입을 얻은 적이 있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19만 7천 명으로 나타났다.
- 전체 15~69살 취업자 2,588만 5천 명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규모임. 여기에는 알바천국·알바몬·사람인 등 구인구직 알선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 145만 4천 명이 포함돼, 엄밀한 의미의 플랫폼 노동자라고 보긴 어려움.
- 이들을 제외한 뒤 남은 ‘협의의’ 플랫폼 노동자는 66만 1천 명으로, 15~69살 취업자의 2.6%에 해당함.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이 15~64살 취업자를 대상으로 규모를 추정했을 때, 22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0.92%에 해당했던 것보다 3배 남짓 늘어난 셈임.
- 업종별로 보면, 배달·배송·운전이 50만2천 명(75.9%)이었음. 이 가운데 주업인 사람은 50.2%로 절반 수준이었고, 부업은 35.0%, 간헐적 참가자는 14.8%로 나타났다.
- 가사·청소·돌봄서비스는 2만 명 남짓, 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은 3만 1천여 명이었는데, 가사·청소·돌봄서비스는 주업형이 많은 반면,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은 부업형이 가장 많고, 간헐적 참가형-주업형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수가 5만 3천여 명인 통번역·강사·상담 등 전문서비스도 부업형-전업형-간헐적 참가형 순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 노동자들이 계약을 맺은 뒤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47.2%가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경 전에 사전 통보하거나 의견을 묻는 비율은 39.7%였음. 플랫폼이 정한 규정과 규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였는데, 이를 위반했을 때 가해지는 불이익은 일시적인 앱 차단·일감배당 중단이 83.4%, 계약·등록 해지가 58.8%로 나타났다.

〈표 5〉 플랫폼 노동자 규모 및 유형

(단위 : %)

전 체		남 성		여 성	
배달·배송·운전	29.9	배달·배송·운전	47.5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33.1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23.7	음식조리·접객·판매·수리	15.5	전문서비스	14.5
전문서비스	9.9	사무보조·경비	8.5	가사·청소·돌봄	10.1
사무보조·경비	8.6	전문서비스	6.0	배달·배송·운전	9.8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5.7	데이터 입력 등 단순작업	3.5	사무보조·경비	8.6

자료 : 고용정보원.

〈표 6〉 플랫폼 노동자 노동조건

(단위: %)

	주업	부업	간헐적 참가형
월 근무일(일)	21.9	10.3	5.4
일 근무시간(시간)	8.9	4.5	3.1
월 소득수준(만 원)	192.3	74.3	22.7

자료 : 고용정보원.

◆ 전남교육청 운전직공무원 노조 출범

- 12월 1일 전남교육청 운전직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하였고 산하 11개 시·군지부와 대의원으로 조직구성을 마쳤음.
- 기술직군 소수직렬 노동조합으로는 전남교육청 운전직공무원 노조가 전국에서 처음 설립되었음.
- 노조에 따르면 기존 노동조합은 다수의 교육행정직렬로 구성되어 있어 소수 기술·특수직렬의 업무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복지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음.
- 이번에 출범한 노동조합은 35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인사와 제도개선·복지 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롯데마트 130여 명 2차 희망퇴직

- 11월 30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10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신청을 받은 희망퇴직자 130명에 대한 퇴직금 등 지급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음.
- 롯데마트는 동일 직급 8년차 이상 직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음.
- 퇴직자들 중 보직 유무에 따라 기본급의 최대 27~30개월치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받았음. 아울러 재취업 지원금 2,000만 원과 1인당 500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 등을 함께 지원받았음.
- 롯데마트는 앞서 2월에도 직급별 동일 10년차 이상 정직원을 대상으로 창사 이래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음. 당시 신청한 70여 명을 포함하면 올해 2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택해 회사를 떠났음.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허용

- 1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

- 근시간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됐다.
 - 그간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음.
 -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임.
 - 아울러,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함.

◆ 경기버스 노동자 정년 '63세→65세' 연장

- 11월 19일 경기지역 자동차노조에 따르면, 임금인상과 1일 2교대제, 정년 65세 연장을 도입하기로 하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노조는 교섭에서 경기도 버스노동자 80%가 하루 17~18시간씩 위험천만한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다며 1일 2교대제 도입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음. 합의에 따라 내년 중반기부터 교대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음.
- 올해 임금은 공공버스는 11월 22일 근무 기준 월 10만 원, 민영제 버스는 상여금 인상액을 포함해 월 12만 원 인상하기로 했음.
- 1일 2교대제 전환에 따른 인력 확보 기간을 가지기 위해 노조가 요구한 정년 65세 연장도 시행하기로 했음. 정년 연장은 2022년 1월 1일 정년을 맞는 조합원부터 적용함.

◆ '배달 라이더' 안전 위해 고양시 1인당 10만 원 지원

- 11월 29일 고양시에 따르면, 배달종사자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월 5일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사업예산 1억 원이 2회 추경으로 마련되었음.

- 마련된 지원비로 고양시 배달노동자 및 퀵서비스 종사자 1천 명에게 안전장비 구입 시 1인당 최대 10만 원이 지급됨.
- 지원비는 신청서와 구입 영수증을 제출한 뒤 확인을 거쳐 지급됨. 2021년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2021년 11월부터 3차 신청을 받고 있음.
- 현재 전국에서 음식 배달과 퀵서비스 등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약 3만여 명(고용정보원 2019년 통계)에 이르고, 고양시의 인구 비율을 적용하면 약 2,400명이 해당자임.

◆ ‘전주형 상생 일자리’ 구축

- 11월 30일 전주시는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전주형 상생일자리’ 상생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음. 노사민정협의회는 앞으로 탄소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음.
- 확정된 상생협약은 탄소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향함. 내용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운동을 비롯, 탄소산업 협동조합 구성·운영, 대·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협력, 전주탄소산업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음.
- 시는 연말까지 노사민정 대표와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전북도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뒤 위원회 구성과 컨설팅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 참여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 투자 세제 특례는 물론 근로복지 정주환경 개선 등에 있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서울시설공단 ‘위험작업 거부권’ 전면 보장

- 12월 1일 서울시설공단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 최초로 현장 근로자에게 위험작업 거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음.
- 서울시설공단 현장 근로자는 시설 점검이나 보수·정비 작업을 할 때 위험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 전이나 도중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관리자에게 작업 거부를 통보할 수 있음.
- 근로자가 작업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됨. 이후 안전시설 설치·인력 추가 배치 등 안전 보완 조치가 이뤄지고 나서야 작업이 재개됨. 작업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 작업거부권은 서울어린이대공원, 지하도 상가 등 공단이 운영하는 24개 사업장 소속 직원에게 즉시 적용됨. 공단은 이후 제도 보완과 개선을 거쳐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까지 확

대해 시행할 방침임.

- 작업거부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보장하는 '작업중지권'보다 폭넓은 개념임.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작업거부권은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행사할 수 있음. 작업거부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 안전망을 강화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게 공단의 목표임.

◆ 정부 미래차 전문인력 2,300명 양성

- 12월 2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는 자동차 업계가 호소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발표했다.
- 내연기관에서 전기·수소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은 산업부가 맡음. 2021년 105억 원으로 1,100명 인력을 양성하려던 사업을 확대해, 내년에는 259억 원으로 2,300명을 양성할 예정임. 석·박사급 고급인력 160명, 중급인력 720명, 현장실무인력 1,400명 양성이 목표임.
- 미래자동차로의 사업 재편을 희망하는 기업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환교육을 하고, 중장년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기로 하였음. 대학 학부과정에 '미래차 융합전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국 15개 대학을 선발·지원해 고급인력을 배출하기로 함.
- 노동부는 내연기관 종사자의 직무전환과 신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자동차 부품기업 등에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조직·직무 재설계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함.
- 재직 중 유급휴가훈련을 통해 직무를 전환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함. 기업·대학·연구원 등에서 재직자·채용예정자에게 직무전환 훈련을 제공할 때 장비구축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음.
- 중기부는 사업 전환과 노동 전환 통합을 지원하는 구조혁신지원센터를 내년에 신설함. 사업 전환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정부는 이날 호남을 시작으로 7일 동남권(울산 한국산업인력공단), 9일 충청권(천안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 14일 대경권(대구지방고용노동청), 16일 수도권(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설명회를 개최했음.

◆ 재택근무 40% · 원격수업 60% “비효율적”

- 11월 17일 통계청은 2021 사회조사 결과를 통해 재택근무를 한 19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재택근무가 효율적이라는 응답은 56.8%로 비효율적(43.2%)이라는 반응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 부정적 응답의 주된 이유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50.2%)가 가장 많았고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져'(16.4%), '가사·육아 등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10.1%) 등의 순이었음.
- 18세 이하 인구 10명 중 9명(92%)은 코로나19 기간 원격수업을 받았는데 '비효과적'이라는 응답이 60.7%에 달했음. 이유는 '원격수업에 필요한 환경 미비'(20.9%)가 가장 많았고, '수업내용·구성 미흡'(19.0%), '학습에 집중할 수 없다'(18.2%) 등이었음.
- 사회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조사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조사가 추가됐음. 이번 조사는 전국 약 1만 9,000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2~27일 실시되었음.

◆ 야근 사업장 3곳 중 1곳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 11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과 물류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음.
- 조사 결과 51곳 중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음.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유통업과 물류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많았음. 노동부는 이들 17곳에 총 5,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음.
- 노동부는 감독 대상 51곳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음.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야근시간은 6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이 38.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1.5%, 4시간 미만이 11.1%이었음.
-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중복응답)는 '경제적 이유' 55.8%, '회사 근무체제' 53%였음. 야간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도 9.6%에 달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 “임금명세서 못 받아”

- 11월 2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1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공

- 개했음.
- 응답자 평균연령은 45.7세로 21%가 5명 미만 의원급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응답자의 87.6%가 근로계약을 작성했지만 교부받은 비율은 69.5%였음.
 -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 임금명세서 교부율도 60.6%에 그쳤음. 지난 11월 19일 근기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는데 이를 모르는 응답자가 43.7%를 차지했음.
 - 응답자의 29.3%가 주 6일 이상 근무했는데 5명 미만 사업장은 65.8%가 주 6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간호조무사 절반 이상은 임금이 최저임금을 넘어서지 못했음. 특히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다는 응답은 17.4%였는데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사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4.4~15.6%)을 웃돌았음.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도 51%가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를 받는다고 응답했음.
 -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실시되었으며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5,152명이 응답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